

2000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

[사례명] 등기소로 바로 가세요.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에서는 법원산하 등기소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소와 구청, 등기소 등을 수차례 왕복하던 불편함을 등기소 1회 방문(ONE-STOP)으로 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소개]

등기소에 한번만 가면 등기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려면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을 받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잘못되거나 등록세 납부절차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 비싼 수수료를 주고 대행시켜 왔습니다.

이럴 때 자기집을 마련한 기쁨보다는 등기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걱정과 불편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등기소 내에 구청지적과 분소라고 할 수 있는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공동으로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즐겁습니다”라는 표제의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수록한 것임.

이제 등기소에 단 한번만 가시면 ONE-STOP으로 등기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구청과 등기소를 몇 번이고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말끔히 사라짐으로써 등기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를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너무도 어렵고 복잡하였습니다.

집을 팔고 사게 되면 등기를 마쳐야 완전히 내집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한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누구든지 집을 사게되면 하루 빨리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법원산하인 등기소에서 처리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절차를 위임하여 수수료를 주고 등기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만약 개인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서, 때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첨부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구청이나 군청에 가야 하며 서류가 잘못되면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부산시는 처음부터 시민이 필요한 곳으로 구·군이 미리 찾아가서 지적·세무·공시지가 등의 전산단말기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발급해 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ONE-STOP 등기절차를 위한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준비

부산시에서는 '99. 10. 6 등기소 내에 『지적현장 민원실』 설치운영계획을 세우고, 대법원에서도 2000. 3. 31 『지적현장민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내규』를 제정하여 구·군 민원실용 사무실을 무상제공함은 물론 직원의 상시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편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등기소내에 구청과 군청의 지적과 분소라 할 수 있는 『지적현장민원실』

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는 준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 개설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였습니다.

부산시 관내에는 9개 등기소에서 16개 구·군의 등기사무를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이들 등기소는 부산시의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에는 대부분 동감은 하였으나 대다수의 등기소가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실용 장소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문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의 적극적인 배려로 동부지원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등기과 옆자리에 마련하여 해운대구와 기장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99. 10. 11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영도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원내에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인근에 있는 “부용동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00. 4. 26 설치)

이어서 영도구에서는 등기소까지의 거리가 7Km 썩이나 되는 관계로 지적현장민원실 설치가 시급하여 등기소와 가까이 있는 서구청과 협의하여 서구민원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단말기 등의 장비구입비가 곤란함을 알고 부산시에서 단말기 2대, 프린트기 2대를 무상으로 우선 대여해 줌으로써 예산상의 어려움도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군의 민원을 60~80% 전담처리 하는 지적과를 중심으로 지적직, 세무직, 공익요원 등 3명을 타기관인 등기소에 파견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의 찬사와 KBS-TV 『우리사는 세상』(2000. 5. 19)등 방송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민원처리로 시간과 경비 절감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소의 「지적현장민원실」에서 각종 구비 서류와 등록세·취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서 납부 후 즉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된 후에는 등기필통지가 「지적현장민원실」에 즉시 인계되어 전산 입력됨으로 이전된 토지대장 등본을 그 자리에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동시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현장민원실에서 등기필통지를 접수·정리하고, 구·군의

토지표시변경축택등기소 신청 후 등기필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산시나 등기소의 각종 우편료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 동부지원 지적현장민원실 민원처리실적 등기신청용 제증명 24,228건,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부 20,368건 62억원(1999.10월~2000.4월)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관할 부산지방법원장과 협의하여 아직 「지적현장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7개 등기소는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며, 이미 설치된 민원실에서는 보다 나은 봉사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토지를 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買收合併(매수합병)

회사가 解散하는 동시에 既存 他會社 또는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그 영업전부를 讓渡하는 경우에 合併과 비슷한 經濟上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通常 買收合併이라 한다. 그런데 商法上의 合併이란 全當事회사가 解散함과 동시(청산절차 거치지 않음). 신회사를 설립하여 후자가 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新設合併과 一當事會社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解散하여 前者가 後者 재산과 社員을 收容하는 吸收合併을 말하는 것이고, 買收合併은 解散會社가 清算節次를 밟아야 하며 吸收하는 會社는 解散會社의 營業만 讓受하고 그 社員을 收容하지 않으므로 商法上의 合併으로 보지 아니하고 營業양도의 일양태로 본다.

- 편집실 -